

아이야의 하나님 (출 3:6-15)

출애굽기 3:6-15

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

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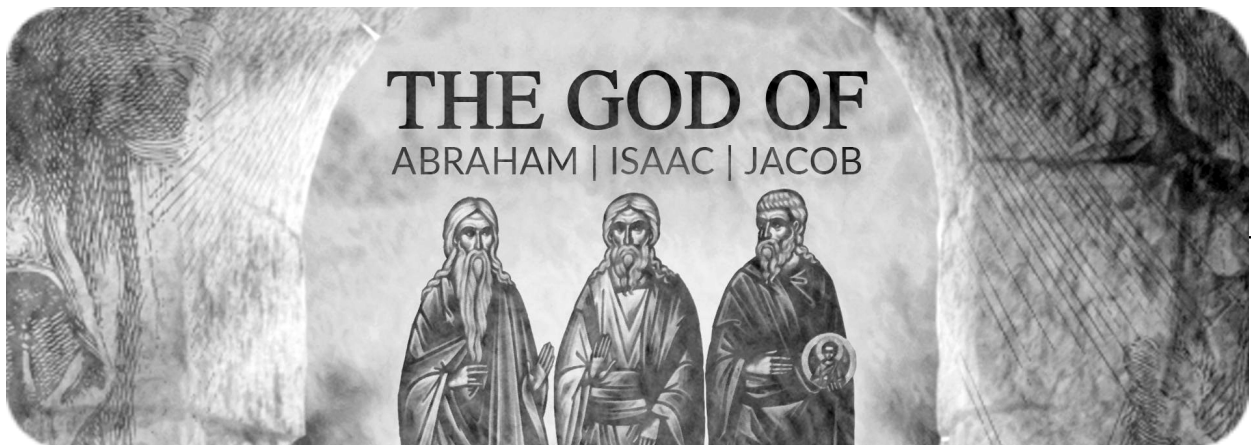
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,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

[서론]

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. ‘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’이다.

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즐겨 사용하셨다.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만 3번

(6, 15, 16절)이나 나타난다. 예수님도 이 표현을 인용하곤 하셨다.



[본론]

1.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

1)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① _____.

당시 후손도 땅도 전무하였을 때 태어나게 될 자식으로 인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.

“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지라.”(창 12: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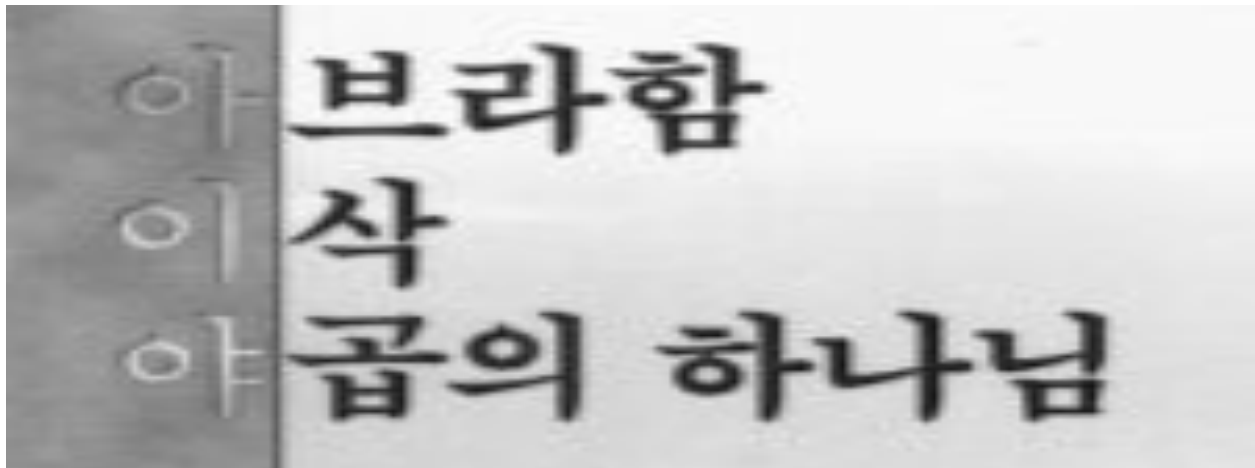
2) 이삭과는 그 언약을 ② _____.

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.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다.

3) 야곱과는 언약을 ③ _____.

야곱과 함께 70인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했고, 12지파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.

“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.”(출 2:24-25)



이처럼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.

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과 ④ _____으로 관계를 맺으신다.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줄을 붙잡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.

2. 언약 때문에

- 1)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? 조상 대대로 우상으로 별어먹던 사람이었다. 우상숭배자였다.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연결하신다.
- 2)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출생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다.
- 3)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 아닌가? 그런데도 자신을 '야곱의 하나님'이라 기꺼이 소개하신다. 바로 언약 때문이다. 행위가 아니다.

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고, 우리는 그 약속에 ⑤ _____ 으로 나아간다.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만남(encounter)이 이루어진다. 이것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다.

3.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되어야 한다.

아(조부모 세대) -> 이(부모 세대) -> 야(자녀 세대), 이 3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. 오고 오는 모든 세대(all generation's)를 의미한다.



육상경기 중 릴레이 경기가 있다. 일정 구간을 나누어 4명이 한 조가 되어 차례로 이어 달리는 경기다. 선수들이 서로 마음을 읽어야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수 있는 경기다. 릴레이 경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baton 터치이다. 릴레이경기는 baton 터치가 생명이다. 이거 놓치면 앞에 사람이 잘 뛰어도 소용없다. 게다가 대회 준비를 위해 잘 못 먹고, 잠 덜 자고,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지도 못하고 애쓴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. 혹시 baton을 놓친 가정 있는가? 다시 일어나 뛰면 우승의 기회도 주어진다. 어떻게 다시 될 수 있는가?

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. 우리는 자녀들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. 또 우리는 언젠가 자녀의 곁을 떠나야 한다. 그럴 때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? 바로 ‘⑥ _____ 의 하나님’ 이시다.

[결론]

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어 주신다. 대학 가기 전, 가정이라는 동지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 ‘부모의 하나님’이 아닌 ‘자신의 하나님’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목장들이 되자.

[적용과 기도]

❖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.

- 아브라함, 이삭, 야곱과 같이 참으로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의 줄을 붙잡았을 때 비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이 열렸습니다. 허물, 연약함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,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
- 다음세대에 넘겨줄 나의 신앙의 바통은 무엇입니까?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입니다.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,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.
- ‘아이야의 하나님’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? 오고 오는 다음세대가 ‘아이야의 하나님’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합니다.